



위 기업으로서, 국민 먹거리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완전 식품인 계란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산란계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계란 소비 촉진 캠페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하였다.



휴브파마®

• 재도약 25주년 기념 행사 성공적 개최



(주)팜스토리 서울사료

• 9월 '사랑의 계란 나눔' 기부 진행



주식회사 팜스토리 서울사료(대표 배수한, 이하 '서울사료')는 지난 9월 10일 계란 10,500개를 푸드뱅크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였다.

9월 계란 기부 행사는 경상북도 성주의 세현에그팜(대표 권용팔)에서 진행하여 불우이웃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였다. 세현에그팜은 '건강한 먹거리에서 간강한 삶이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원칙적인 사양관리를 고수하며 신선한 계란 생산을 위해 체계적인 산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사료는 SPT(Seoulfeed Poultry Thirty)사업부를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회사의 지원으로, 2013년 5월부터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9월까지 총 132만개를 기부하였다.

서울사료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산란계 사료 업계 1

1954년 창립한 글로벌 동물건강 및 첨가제기업 휴브파마®가 재도약 25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불가리아에 본사를 둔 휴브파마는 지난 25년간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이어오며, 금년에는 매출 8억 유로(한화 약 1조 2,280억 원)로 예상되어 글로벌 순위 1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1개국에서 400명 이상이 참석한 이번 창립 25주년 행사는 열린 축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단백질 생산의 중심은 축산업', '완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 생산, 제대로 된 항생제 사용의 원칙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확히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휴브파마가 보유한 명실상부 세계적 최고의 발효 생산 인프라인 불가리아 페슈테라(Peshtera) 공장을 방문했다. 해당 시설은 2019년 준공된 정밀 발효 허브로, 160m³ 규모의 공정 발효조 21기와 20m³ 배양·중간 발효조 7기를 포함해 총 발효용량 3,500m³를 갖추고 있다. 자가 유틸리티, 환경 설비, 자동화 물류 시

시스템까지 갖춘 수직 통합형 생산 캠퍼스로, 휴브파마의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상징하는 시설로 세계적으로 공인받고 있다.

휴브파마코리아(법인장 홍성철)는 이번에 5명의 핵심 고객과 함께 이 행사에 참석하여 세계적 영양학 석학인 Justin Sherrad와 Aidan Connolly에게서 세계 동물성 단백질 산업에 나타날 다섯가지 큰 기회, 1만년의 축산업 역사 및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세계 축산업 변화에 대해서 듣고, 직접 페슈테라 공장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다.

또한 스페인 최고의 투우장인 토레스 라스 벤타스 광장에서 깜짝 갈라쇼를 준비하여 진정한 스페인 스타일의 조명과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진 가운데 훌륭한 현지 음식과 와인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감동을 자아내게 하였다.

휴브파마는 이번 재도약 25주년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동물약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책임있는 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천하제일사료**
 • **고객과 함께 만드는 산란계 산업의 내일 - 양계 전문화 교육 실시**

천하제일사료(대표 권천년)는 2025년 9월 25일 하림 중앙연구소에서 '양계 전문화 교육'을 열고 현장 실증을 바탕으로 한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환절기대비 영양 및 사양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양계 전문화 교육에는 양계 전문 사업부장과 지역부장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가장 합리적인 현장 컨설팅 방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환절기와 동절기를 대비하여 농장에 제안할 수 있는 영양·사양 관리 방법 교육과 최근의 질병 트렌드와 대응 방안, 양계 사용 원료의 이해, 기록 관리의 사전, 사후 관리에 대해 구분하여 실제



농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진 현장 실증 컨퍼런스는 지역 실증 사례를 통해 담당자의 농장 문제 해결 방안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의견들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9월 16~18일 개최된, 프랑스 SPACE 박람회 참여자는 유럽의 최신 양계산업 트렌드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와 향후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천하제일사료는 이번 양계 전문화 교육을 통해 고객 농가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과 현장 경험을 결합한 솔루션을 제안했다.

특히 해외 박람회에서 확인한 글로벌 트렌드를 빠르게 전달함으로써, 국내 양계 농가들이 세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의 도구로서 의의가 있었다.

천하제일사료 이정우 양계 PM은 “최근 사료 회사들이 양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추세를 지적하며, 천하제일사료는 양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고객 농가들에게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글로벌 트렌드 공유, 현장 실증 분석 강화를 통해 고객 농가의 안정적인 성과 창출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우성
• AI 시대 맞춤형 WOS(우성 일하는 방식) 실천 교육 개최



(주)우성(대표 한재규)은 지난 9월 15일, 동탄지사 라운지에서 AI 시대에 대응한 WOS(Woosung Operating System)실천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AI, 우리 일과 미래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임직원 전원이 필수 참석하여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였다.

이번 교육은 “AI가 우리 산업과 일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챗봇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적용을 비롯해, 일상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최신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의 활용 방향을 공유했다.

우성은 AI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임직원 교육을 통해 AI 이해와 활용 능력을 WOS의 핵심 역량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이번 교육은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임직원들이 AI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연을 맡은 김덕진 소장(IT커뮤니케이션연구소)은 방송·저술·기업 자문을 통해 AI흐름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소장은 “AI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이미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현실”이라며 “AI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성 관계자는 “AI는 이제 WOS의 중심에 있는 핵

심 도구”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AI를 통해 업무 방식을 새롭게 하고,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베트남법인, 펫푸드 자동화 포장 설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우성 베트남법인이 펫푸드 자동화 설비 구축과 물류 거점 확충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맞춤형 생산라인을 완비함으로써 동남아 펫푸드 시장 진출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우성 베트남법인은 최신 펫푸드 포장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며 생산 효율화와 품질 고도화를 동시에 실현했다.

이번에 도입된 자동 포장라인은 정밀 중량 조절 시스템과 로봇 제어 기술을 적용해 생산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동시에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또한 전용 환기 시스템과 자동 온도도 제어 창고를 갖춰 제품의 신선도와 위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글로벌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환경을 완성했다.

특히 프리미엄 맞춤형 반려동물 사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토폭형(Topping) 배합 설비를 새로 도입한 점이 주목된다. 다양한 원료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영양 밸런스를 동시에 고려한 고급 펫푸드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우성은 ‘기능성·프리미엄 펫푸드’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